천정배 효과·노영민 신기남 공천 배제…현역 물갈이 시동 거나

야권 주도권 싸움 2라운드…불붙은 인적쇄신

더민주, 김종인표 쇄신
주류의원 2명 당원자격정지
호남 다선 불출마론도 촉각

국민의당 천정배 합류로
물갈이 요구 거세질 듯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간에 인적 쇄신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강한데다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의 요구도 변화와 혁신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영민·신기남 '철퇴'**=더민주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에 휘말린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철퇴를 내렸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고, 신 의원은 범친노(친노무현) 중진이라는 점에서 '김종인 선대위' 체제 하에서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알리는 서곡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더민주는 공직후보자평가위의 20% 현역 물갈이와 신인가산점 부여 및 결선투표제 등을 현역 교체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적 친노·다선 의원의 불출마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또, 부패 혐의 기소 및 형 확정 전력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정밀 심사를 통한 공천 배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천정배 효과**=국민의당은 현재 당헌·당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천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역시 인적 쇄신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어떤 경우에도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공천과 관련해 모든 결정을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선룰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안 의원은 그동안 더민주의 혁신안이 부족하다면서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 후보 자격심사대상 배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 더민주보다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제시해왔다. 여기에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을 주장했던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함에 따라 인적 쇄신의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인위적 물갈이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후, 강력한 쇄신 공천 룰을 마련,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강력한 혁신 공천 룰은 국민의당에게는 필요충분조건"이라며"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한다고 해도 쇄신의 명분을 감안한다면 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 주승용, 임내현 의원 등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공천권 요구, 더민주 주장은 왜곡"

천정배 의원 회견…정권교체 밀알론 제시 총선 불출마도 시사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세력간 통합을 이룬 천정배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당 대 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광주 공천권 등을 요구했다는 더민주 측의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컨대 호남 공천문제만 하더라도 저한테 공천권을 달라거나 친한 사람 있어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뉴DJ'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해서 좋은 국회의원을 뽑자는 취지의 뻔히 알려진 말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공개 접촉과정에서 설왕설래한 이야기를 놓고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라고 응수했다.

천 의원은 "정권교체, 호남개혁 정치부활 등 두가지 과제를 실현하는 밀알이 되겠다고 항상 생각했고,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기자회견문의 첫마디에 '밀알'을 언급했었다"고 전제하고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불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천 의원은 "0.25선(임기 1년)짜리 천정배를 뽑아줬는데 여망과 달리 불출마하거나 옮겨 가는 것은 시민, 지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 과제에 필요한 일이라면 시민과 당내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람직한 쪽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과 '뉴DJ'로 대변되는 새얼굴의 공천 경쟁과 관련해서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과거 프로레슬링에서 링에 오르면 챔피언도 챔피언 벨트를 풀어놓고 도전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싸우게 된다"며 "당내 경선에서도 현역이든 아니든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현역 프리미엄이나 기득권이 강조돼 정치신인이 진출하지 못한 부작용을 고려해 신인들에게도 기회줄 수 있는 장치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안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온 '야권연대는 없다'는 입장에 대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라며 "양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천정배-박주선-정동영의 3자간 통합 합의론에 대해서는 "박 의원과는 인식의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다"면서 "3자간 먼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자(정동영)는 정치 개시도 안했는데, 통합부터 논의한 것 아니다"면서 "서로 생각이 달랐다.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 "호남 뉴DJ 키워낼 것"

국민의당(가칭)은 26일 천정배 의원이 처음 합류한 가운데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전북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천 의원 측 국민회의(가칭)와의 통합에 대해 "국민을 위한 통합이자 호남 미래를 위한 통합"이라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 뉴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신인들)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유성엽·김관영 의원 외에 더민주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없는 점을 의식해 참신한 인물로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통해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좀 더 공격이었다. 그는 "이 지역 의원들은 어찌 보면 태평하다.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들리는 것도 듣지 못한다면 계속 금배지를 달아드려야 하나"라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이 변화하는 현실을 경청하고 좋은 결정을 내린다면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더민주에 대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군부정권에서 탄생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60년 전통 민주당을 송두리째 갖다 바쳤다"며 "이게 비상대책인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천 의원이 더민주와 뭍밑 협상 과정에서 '공천 지분 협상'에 실패, 결국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더민주가 딱하다. 천 의원이 국민의당에 간 게 그리 배 아프나. 전공과목인 재뿌리기 꼼수에다 셀프디스까지?"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북도당 창당에 이어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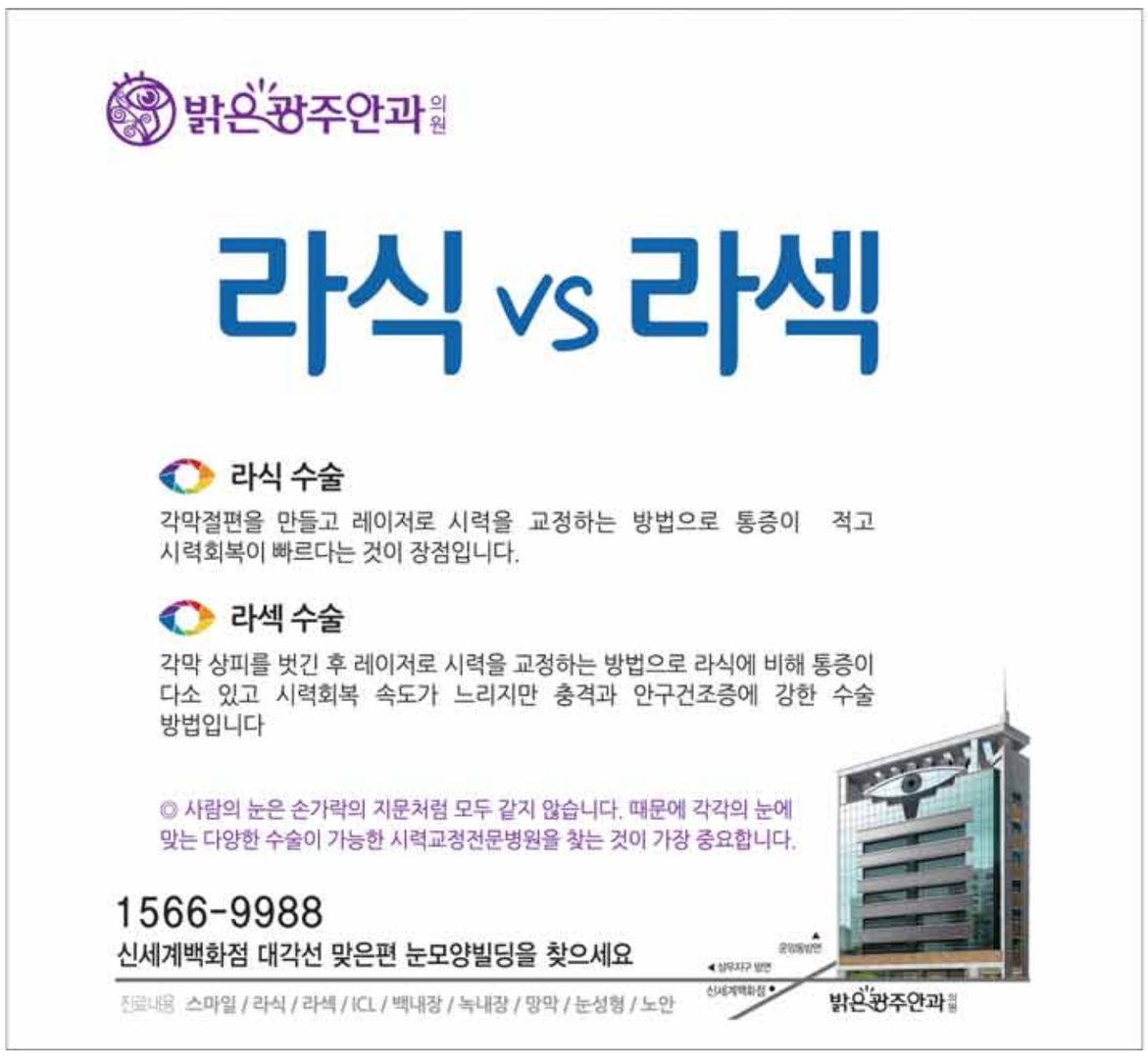
더민주, 호남민심 귀 막고…김종인 지키기

지역정치권 "국보위 참여 사과·유감 표명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26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공격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국보위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더민주의 편들기는 호남 민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의 김 위원장 비난 발언에 대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습이 과거 (대선 당시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약속했던 그 모습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따졌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자, 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보위 참여 자체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점에서 더민주의 김종인 위원장 방어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국보위에서 악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보위 참여에 대한 사과를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